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국가공인 매경 TEST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teen.mk.co.kr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10대들의 '가상놀이터' 넘어… 진화하는 메타버스

Cover Story ▌아바타 소통 늘어…성큼 다가운 새로운 미래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친구들과 만나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즐깁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 신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모델을 맡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메타버스(Metaverse)로 불리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 역시 메타버스 콘셉트로 출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 멤버 4명과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로 만들어진 멤버 4명(그래픽 속 작은 사진)이 더해진 독특한 구성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 신곡 'Next Level'을 공개했습니다. 에스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현실세계 멤버 '카리나'와 홀로그램으로 된 가상세계 아바타 '카리나'가 소통하는 특별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4~5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속 마을에서 선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메타버스 청문회, 공무원들의 아바타를 통한 출석 시스템 등 '메타버스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더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이제는 가상과 현실을 혼합한 더 큰 세계로의 확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메타버스가 떠오르게 된 배경, 메타버스와 증강·가상현실 기술 간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효 기자·이유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 연구원



Q.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요?

A: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Meta)의 의미와 현실세계(Universe)를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나 증강현실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공상과학(SF) 작가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용어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입니다.

INSIDE



말랑말랑 경제학
묶음상품이 소비자 피해 키워 6



해시태그로 읽는 시사이슈
시가총액 3위 카카오의 질주 10



대문호가 쓴 '고양이 이야기' 15

BTS 탄생한 한국… 다 이유가 있었네



신광철 작가의
마음여행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로 돌아온 방탄소년단(BTS). 【사진 제공=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적인 토양에서 나온 이유가 있다. 루이 암스트롱이나 비틀스의 음악이 탄생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개인의 자유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루이 암스트롱이 나왔고, 비틀스가 나왔다. 한국에서 문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IT와 첨단산업화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신감과 민주화로 만들어진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인정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인은 개성으로 무장한 독립적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 본연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전통 문화유전자와 기질이 맞아떨어진 것이 방탄소년단의 출현이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탄생한 것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민족은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것에 타고난 민족이다. 둘째, 문화창조능력이다. 기어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마는 호기심에 있다. 셋째, 뛰어난 머리와 순발력과 함께 참고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다.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춤추고 노래하며 노는 기질이 유전자 속에 있다. 고대 기록에 우리 민족은 음주가무(飮酒歌舞)에 뛰어나다고 적고 있다. 그것도 주야무휴(晝夜無休)로 놀았다고 적고 있다. 정리하면 술과 음식을 마련해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놀았다는 기록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떼창과 떼춤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즐기고 있다.

음주가무에 뛰어난 한민족
고대의 기록에도 곳곳 등장

문화창조능력·지적 호기심
한국인의 선비 기질도 한몫

타고난 머리에 순발력 갖춰
참고 견디는 능력도 탁월해

둘째, 문화창조능력이다. 우선 한국인이 가진 선비 기질에서 찾을 수 있다. 선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학자다. 학자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적다. 당연히 새로운 문화창조에 익숙하다. 달리 말하면 기어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마는 지적 호기심이 있다.

또한 대륙문화와 대양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문화가 만나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문화가 충돌하는 변경이기도 하다. 문화도 적응을 배웠다. 변경에서 문화는 창조된다.

셋째, 뛰어난 머리와 순발력 그리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다. 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순발력까지 있다. 여기에 한국인의 기본 정신인 은근과 끈기가 있다. 아이돌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 말한다. 다른 나라 아이들을 데려다 훈련을 시키면 한국아이들처럼 몇 년을 참아내고 견뎌내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인은 그만큼 참고 견디는 능력을 타고났다. BTS가 한국에서 그냥 탄생할 리가 없다. 대추 한 알에도 장마와 가뭄과 바람이 들어 있다. BTS는 한국인의 또 다른 문화아바타다.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회 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주 필	손현덕
편집국장	김명수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02) 2000-2408
이메일 : teen@mk.co.kr
홈페이지 : teen.mk.co.kr

구독문의	(02) 2000-2383
광고문의	(02) 2000-2200



경제공부의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도착됐다, 보여집니다… 남발하는 피동

말벗 글벗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도착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은 알림이 왔다. 일주일 전에 사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신발이 드디어 '도착됐다'는 내용이었다. 신발이 제 발로 걸어올 리 없으니 택배기사에 의해 우리 집 문 앞으로 도착을 '당한' 모양이다. 그러나 '도착하다'는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로 '-되다'와 같은 피동형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상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사, 안내문, 일상 대화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는 피동 표현을 남발하는 문장이 넘쳐난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자동사에 '-되다'를 붙이는 형태다.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문장인 '하루 사이 추가 확진자가 ○○○명 발생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에도 같은 오류가 있다. '발생하다' '확산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능동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 외에 '유래하다' '해당하다' '발전하다' 등도 피동형보다는 능동형이 어울린다.

피동 표현을 두 번이나 겹쳐 쓰는 사례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피동형을 만들 때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사용하거나 '-어(아) 지다' '-되다' 등을 붙이는데, 이 중 두 가지 방법이 한 번에 쓰여 중복된 경우 이중 피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가 인터뷰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가 돼야 바람직하다. '보여지다'는 피동 접사 '-이-'가 붙어 이미 피동사가 된 '보이다'에 피동 보조동사 '-어지다'가 또 붙어 이중 피동이 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잊혀지다→잊히다' '짜여지다→짜이다' '닫혀지다→닫히다' '쓰여지다→쓰이다' 등도 피동이 중첩된 예다.

〈매일경제 교열부〉

후원 :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KYOBO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MERITZ 메리츠화재

흐르는 강물에 뱉어내는 이별의 눈물·아쉬움·분노



전현선 교사의
고전문학 감상



【게티이미지뱅크】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유명했던 가요의 한 구절이다. 오래전 유행가인데, 아직도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노랫말 속 남녀는 이별하고 있다.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린다. 아마 두 쪽 다 이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계속 함께하고 싶은 이 남녀는 '바다'를 핑계 삼아 아프게 헤어진다.

이별의 핑계가 왜 하필 '바다'일까. 이 의문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구절을 통해 해결된다. 남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먼 길을 떠나는 상황인 것이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훌쩍 떠나 버린 곳에 '항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여자는 항구와 같이 그 자리에서 떠난 남자를 기다린다. 이별의 이유가 바다는 아니겠지만, 바다라도 핑곗거리로 삼아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것이다.

예로부터 강가는 이별 장소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고려시대 정지상의 '송인'
강물 통해 애절한 슬픔 표현

'서경별곡'에 나오는 이별의 강
사랑하는 사람 배 타고 떠나자
그 배 띄운 뱃사공에 화풀이

옛 노랫말에서 '항구'였던 공간을 지금 시대에 맞게 고친다면 '공항' 정도가 어울린다. 옛 바닷가나 지금의 공항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기득하다. 저마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슬픈 이별의 사연이 항구나 공항에는 쌓이고 또 쌓여 있다.

항구나 강가가 이별의 상징이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물이나 강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없어서 '단절'이나 '분리'의 의미를 지녔다. 강가나 바닷가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오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수많은 이별의 사연들이 묻어 있다.

>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가신 임을 어이할꼬 – 공무도하가

옛 사람들에게도 강가는 이별의 장소였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서글픈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 노래에서 물을 건넌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노래를 부르는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물을 건너지 않기를 간절히 애원하지만, 결국 임은 물을 건너고 둘은 헤어진다. '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매개인 것이다.

>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 이별의 눈물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질 터인데
> – 정지상, 송인(送人)

고려시대 문인 '정지상'에게도 강가는 이별의 슬픔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비 온 후 강가에는 싱그러운 풀빛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배경으로 누군가는 이별을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에서도 누군가는 헤어지는 것이다. 이별의 장면을 바라보다 작가는 문득 상념에 젖는다. 그리고는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한다.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이 강물에 눈물을 보태는 까닭일 것이라 생각한다.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틀린 말이다. 하지만 노랫말 속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다.

당시 이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 네 아내가 음란할 줄을 몰라서
>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 대동강 건너편 꽃을
>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가기만 하면 꺾을 것입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고려시대 불렀던 노랫말 중 일부다.

이 노래 속 화자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 강물이 등장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지면, 누구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노랫말 속 화자가 화풀이로 삼은 대상은 '뱃사공'이다.

화자는 사공에게 왜 배를 강물에 띄우느냐고 퍼붓는다.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공의 아내까지 들먹이며 괜히 사공을 공격한다. 그만큼 이별이 싫은 것이다. 이별이 너무 힘든 나머지, 나와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강물에 대한 미움을 사공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기분이나 정서가 있다. 강가나 바다는 과거 이별이나 헤어짐의 장소였다.

우리는 옛 노래에 등장하는 강과 바다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겪었을 이별과 슬픔을 조금은 헤아려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다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Cover Story

메타버스의 시작

코로나에 갇힌 사람들, 가상공간으로 떠났죠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개최된 미국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 총 2770만명의 관객이 모였으며 200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제공=에픽게임즈】

Q.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는데.



A.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대체하는 말로,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3차원(3D)의 가상공간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는 현재 통용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프로타고니스트'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스노우 크래쉬'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마약이 가상세계의 아바타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접속한 현실 세계의 실제 사용자 뇌에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위험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인공이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악의 무리와 싸우는 것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Q. '메타버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근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고 디지털화된 라이프스타일로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가능한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그 외 친목모임 등 코로나19로 불가능해진 행사들은 디지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디지털화된 가상공간 속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은 메타버스의 확산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통해 멀티 페르소나를 즐겨 형성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메타버스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르소나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계에서 나를 다양한 아바타로 바꿀 수 있는 메타버스는 이러한 MZ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세계의 '나'와는 다른 가상공간 속 또 다른 '나'를 분리하고 이 아바타를 활용해 디지털 환경 속 색다른 경험을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성공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어린이 게임 플랫폼으로 레고 모양 아바타가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입니다. 미국 16세 미만 어린이의 55%가 가입해 있을 만큼 거대 플랫폼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3260만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총 이용시간은 306억시간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습니다.

Q. 메타버스엔 어떤 기술이 적용되나요.



A. 요즘 10대 사이에서 인기인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페토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3D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사용자의 사진을 기반으로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엔 얼굴인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AI가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위 크기를 분석하는 등 얼굴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용자가 가장 예쁜 아바타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비친 사용자의 눈썹과 입꼬리 등 미세한 표정 변화를 따라하는 것은 3D모션 캡처 기술 덕분입니다.

AR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K팝 아이돌, EBS 펭귄 캐릭터 '펭수', 디즈니 프린세스 등 AR 캐릭터를 언제 어디서나 현실 세상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3D AR 캐릭터는 특수 스튜디오에서 초고화질(UHD) 카메라 수십 대로 모델의 움직임을 촬영한 뒤 이를 360도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사람과 똑닮은 가상 세계의 인물을 창조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만 개의 빛을 쏘는 광학장치와 카메라 기반의 스캐너보다 정밀도가 100배 이상 높은 특수 렌즈를 활용해 특수 의상을 입은 모델을 스캔합니다. 센서를 통해 동작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로 이를 분석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605㎢ 면적의 약 60만동에 이르는 건물들과 2092㎞의 도로들이 디지털 공간에 구현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와 서울시가 항공사진과 AI 기술을 활용해 3D모델로 만든 겁니다. 현실 세상이나 사물을 거울에 비춘 모습대로 가상 세계에 옮겨 놓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합니다.

새 경제영역 열렸지만 법·제도는 허점 많아

지붕이의 상식사전



Q. 메타버스의 세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데.

A. 미국의 기술 연구단체 미래가속화연구재단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네 가지 세계로 분류됩니다. 첫째, 현실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우는 AR 세계로,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 사례예요. 둘째,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고 공유하는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여기에 속해요. 셋째, 현실세계를 디지털로 옮기는 거울세계가 있습니다. 작게는 특정 공간을, 크게는 도시 전체를 온라인 공간에 3D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넷째,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창조하는 VR예요. 요즘 미국 10대가 가장 많이 즐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블록스'가 해당돼요.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네 가지 세계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머지않아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이 섞여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메타버스 경제가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 메타버스는 높은 사업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해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메타버스의 넓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게임 내에서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해 가상공간 속에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실제 거래가 이뤄집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환영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SM 신인 걸그룹 '에스파'는 메타버스에서 신곡을 공개하고 멤버들이 디지털 캐릭터로 전환되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확실한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또 기술적 발전이 메타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영상 인식 기술 등이 발전하며 AR·VR와 같은 진보된 기술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5대 빅테크 기업(MS·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을 만큼 메타버스 패권전쟁이 치열합니다.

Q.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는.



A. 온라인 쇼핑에서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등 패션 소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가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등 가상 착용이 가능한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가상공간에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현재 길찾기나 내비게이션은 2차원(2D) 이지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3D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AR 글라스와 같은 디바이스를 착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켜면 화면에 3D 화살표가 등장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거죠. 포켓몬고처럼 중간에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요원들이 원격회의를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대화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공장에선 이런 메타버스 회의 기술을 이용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계에선 부동산 정보 기업 직방이 현실세계의 사무실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폴리스'를 개발했습니다. 직방 직원은 아바타로 메타폴리스에 출근합니다. 사무실에 로그인하면 아바타가 가상공간의 책상에 앉고 영상회의를 통해 동료들과 회의하는 식이죠.

Q. 메타버스의 문제점은 없나요.



A. 불완전한 법 제도, 중독 가능성은 메타버스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입니다.

책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강원대 교수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며 "현실세계처럼 손괴, 절도, 횡령, 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처벌은 계정 사용 정지 등에 그쳐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운택 KAIST 증강현실연구센터 센터장 역시 "VR·AR를 디지털 트윈과 연동해 현실 공간과 연결하면 폭발력이 상당히 크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긍정·부정적인 면 모두 존재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새로운 시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도 엄연한 가상 '세계'로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실세계의 법을 가상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보안, 해킹 등과 관련된 메타버스 내 범죄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확립돼야 합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밀접하게 닮은 양상을 보이기에 사용자로 하여금 중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구분하는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어 메타버스가 범용화되기 이전에 보다 철저한 기준과 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박기효 기자·이유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 연구원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당근이나 브로콜리를 접시에서 골라내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기 위해 엄마가 제안을 한다. '그릇에 있는 당근을 다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좋아.' 음식을 가려 먹는 아이에게 싫어하는 채소를 먹는 조건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흔히 사용하는 양육 기술이다. 부모들의 이런 전략을 비즈니스 환경으로 확대하면, 산업조직론이나 마케팅의 주요한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인 '번들링(Bundling)'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할 유인으로 약간의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잘 팔리는 상품과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이나 소비자들의 이익(잉여)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독과점 회사가 파는 '묶음상품' 소비자 피해 키운다

Q. 번들링 전략은 무엇인가요.

A. 번들링 전략은 두 제품을 반드시 묶어서만 판매하는 순수번들링과 묶음뿐만 아니라 낱개로도 판매하는 혼합번들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가 정장을 판매할 때 재킷과 바지를 묶어서만 판매하고,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순수번들링 사례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사례의 묶음 판매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데 만일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과 소비자들이 덜 선호하는 물건을 묶어 순수번들링 전략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이는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상품을 지렛대 삼아 독과점 상품을 판매할 때 보완재를 묶어서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해 생산자들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상을 '지렛대 이론(Leverag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Q. 번들링은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나요.

A. 1990년대 중반 '윈도(Window)'로 PC의 운영체제(Oerating System)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묶어서 판매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번들링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웹브라우저 시장은 넷스케이프(Netscape)의 내비게이터(Navigator)가 MS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MS는 자사의 운영체제인 윈도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익스플로러가 깔리게 했고, 이를 이용해 웹브라우저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결국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이러한 MS의 행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결국 3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MS와 미국 규제당국은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Q. 어떤 상황에서 번들링 이윤이 증가하나요.

A.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두 사람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영화관이 하나 있고, 각 사람이 영화를 보고 얻는 만족(지불의사가격)은 아래와 같다. 영화관 주인은 가능한 한 두 사람이 두 가지 영화를 다 관람하도록 만들어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영화관 주인이 영화를 각각 상영할 경우 전쟁 영화는 1만1000원, 코미디 영화는 2만원에 상영해야 매출이 6만2000원으로 매출이 극대화된다. 만약 두 영화를 묶어서 상영한다면 영화관 주인은 관람료를 3만1000원으로 측정해 전과 같은 6만2000원의 매출을 얻는다.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영화관 주인이 운영의 편의성이나 다른 이유로 동시 상영을 한다면 공급자들의 이윤이나 소비자잉여의 변화는 없지만 거래가 간소해져 시장 운용의 효율성 등이 증대될 수 있다.



	A	B
전쟁 영화	1만5,000원	1만1,000원
코미디 영화	2만5,000원	2만원

반면 선호가 아래와 같은 두 번째 마을의 영화관 주인이 영화를 각각 상영하면 전쟁 영화 1만5000원, 코미디 영화 1만원에 요금을 책정해 5만원의 매출을 얻는다. 그런데 영화관 주인이 두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전략을 쓰면 3만원으로 영화 관람료를 책정해 6만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전쟁 영화보다 코미디 영화를 더 좋아하는 첫 번째 마을에서는 동시 상영해도 소비자잉여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영화를 좋아하는 취향이 서로 다른 두 번째 마을에서 동시 상영했을 때는 영화관의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묶음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선호가 서로 다를 때(마이너스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기업은 번들링 전략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A	B
전쟁 영화	2만원	1만5,000원
코미디 영화	1만원	2만5,000원

과거 아날로그 테이프이나 LP로 음반을 판매할 때 가수들은 음악을 앨범(묶음)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음원이나 영상을 분리해서 개별 판매를 하는 것이 쉬워졌다. 반대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들 선호에 대한 정보는 기업들이 번들링 전략을 기획하는 데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더 다양한 번들링 상품들 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들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더 주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알쏭달쏭 OX 퀴즈

1. 지렛대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순수번들링'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킨다. ( )
2.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을수록 번들링 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 )
3.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같을 때 기업은 번들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정답1. ×, 2. ○, 3. ×



임성택 박사의
도전과 응전의 경제학

코로나19 사태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뜨겁다. 그 기반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여 가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늘려주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 중 상당수를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내 수요가 직접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소비함수와 승수효과 논리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이것은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근거를 제시해주었지만, 곧 학자들 사이의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중심에는 밀턴 프리드먼과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있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 생애소득가설로 '재정지출 효과' 뒷받침

Q. 케인스의 소비함수는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A. 케인스는 가계가 얼마나 소비지출에 돈을 쓸지를 아주 간단한 함수를 이용해 설명하였다. 우선 가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항상 지출하는 부분이 있다. 매번 일정하게 지출하는 주거비나 식재료 구매비용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소득이 커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월급이 늘어나면 옷을 여러 벌 사거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더 고급으로 구매하게 마련이다. 월급이 1원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을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 하는데, 이것이 클수록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강해진다. 케인스는 한계소비성향이 0과 1 사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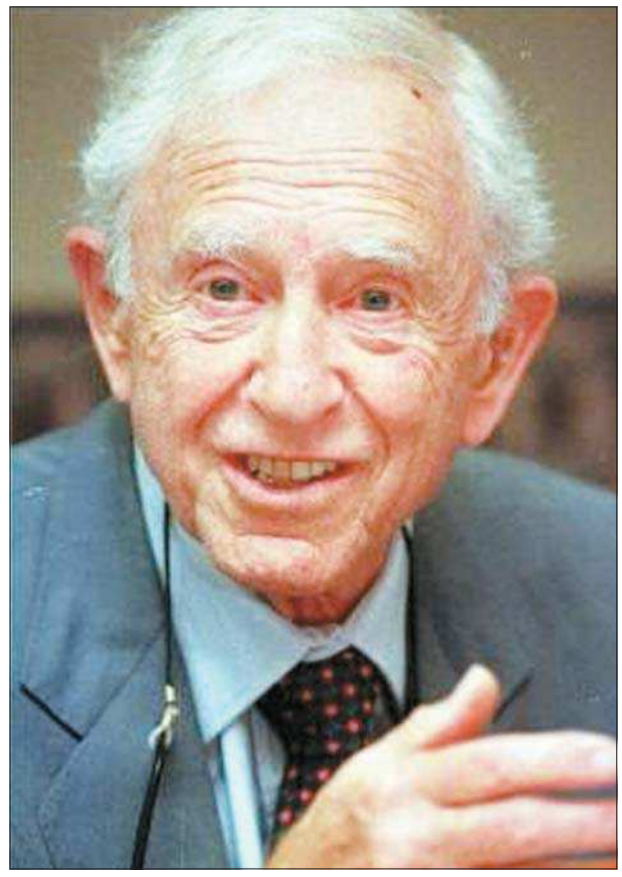
이러한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그것보다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전체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일정하게 나타나면서 케인스의 소비이론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Q. 모딜리아니의 생애소득가설이란 무엇인가요?

A. 모딜리아니는 191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일어로 된 경제학 논문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학에 흥미를 느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은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에 파시즘(국가주의 사상) 정권이 들어서자 모딜리아니는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케인스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케인스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이 그중 하나였다.

모딜리아니는 가계에서 소득이 인생에서 일정 기간(15~65세)에만 발생하는 반면, 소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자 함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한번 늘어난 소비수준을 줄이는 데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더라도 그때 다 써버리지 않고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 가계는 저축을 하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 모으게 되는 재산을 인생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함수를 다시 설정하면 1) 축적한 재산을 일생 동안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과 2) 재직 기간(약 40년) 동안 벌게 될 소득을 생존 기간(약 70년)에 맞춰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럴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케인스와 유사하게 나타나면서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축적하는 재산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Q.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이란 무엇인가요?

A. 그러나 케인스학파와 대립 관계에 있었던 프리드먼은 모딜리아니와 유사한 아이디어에서 정반대 결론을 도출했다. 프리드먼은 가계의 소득이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일시적 소득(transitory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항상소득은 개인이 일생 동안 확고하게 얻는 부분으로, 임금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고학력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는 항상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시적 소득은 회사에서 호실적에 따른 상여금처럼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개인들이 소비할 때 항상 소득에 비례하여 소비를 계획한다고 지적하였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그것은 인생 전체에 걸쳐 벌어들일 소득에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뜻밖의 소득이 생기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계는 소득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저축이나 대출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다.

프리드먼은 이상의 논리에 따라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지출을 증대해도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항구적인 변화(세율의 인하 등)를 주어야 한다.

과연 누구의 이론이 맞았을까? 두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이 현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이론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프리드먼과 모딜리아니의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모딜리아니는 소비이론 외에도 기업 재무이론에 혁신적 공로를 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알쏭달쏭 OX 퀴즈



1.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증대된다. ( )
2. 개인들은 소비를 생애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평탄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 )
3. 생애주기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재정 팽창 정책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 )

▶ 정답 = 1. ○ 2. ○ 3. X



조은나라 세무사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

회사 생활을 그린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이사님'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이사'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꽤 높은 직위에 있다. 그리고 간혹 뉴스에서 '○○기업 사내이사로 A씨가 선임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부장, 차장은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사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업무 집행하는 '이사' 있어야 사업계획 정하죠

Q. 이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A. 이사라는 용어는 일상생활과 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드라마와 뉴스에 등장하는 이사는 각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직위를 의미하는 이사는 대리, 부장, 차장과 같이 회사 내의 직급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이사가 되면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반면 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법인의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함에 '이사'를 표시한다고 법적으로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인 등기를 해야 법에서 말하는 이사가 되며 이를 '등기이사'라고 부른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가족사항을 알 수 있듯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등기를 한 이사의 명단을 알 수 있다. 즉 법률적인 의미의 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Q. 이사를 법률에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사를 법률에 정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법인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호에서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실체를 말한다고 했다. 법인도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고,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정하고 구매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업무 결정은 누가 하고 계약서에 도장은 누가 찍을까. 간혹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법정에는 누가 출석해야 할까. 법인은 사람과 같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람이 아니므로 누군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결정할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가 있으며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이사회(理事會·board of directors)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서 이사란 등기이사만을 의미한다. 즉 회사 내에서 '이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비등기이사이며 이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이사회는 상법에 의해 회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다.

이사회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업무 종류는 다양하다. 주주 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대표이사 선임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놓은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정관(定款·articles of incorporation)이란 회사의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다. 나라마다 해당 국가에만 적용하는 법률이 있듯이, 회사마다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해서 지키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정관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했다면, 다른 회사는 지점을 설치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더라도 A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해놓은 일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Q. 이사는 몇 명이고 누가 선임하나요.

A. 회사 일을 결정하는 이사가 한 명이라면 단독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과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바라는 방법은 아니다. 회사의 업무 의사결정은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쇠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자금에 합당한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결정하길 바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정해놓고 있다. 다만 소규모 회사는(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위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사는 누가 선임할까. 바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사람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다.

Q. 이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A.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이사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인 사외이사(社外理事)가 있다.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회사의 최대 주주와 일정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사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면 뜻을 모아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외이사는 전문가로 선임해 회사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 영역

가능한 업무(예시)	불가능한 업무
• 주주총회 소집 • 지배인 선임과 해임 • 지점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 대표이사 선임	• 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놓은 것

알쏭달쏭 OX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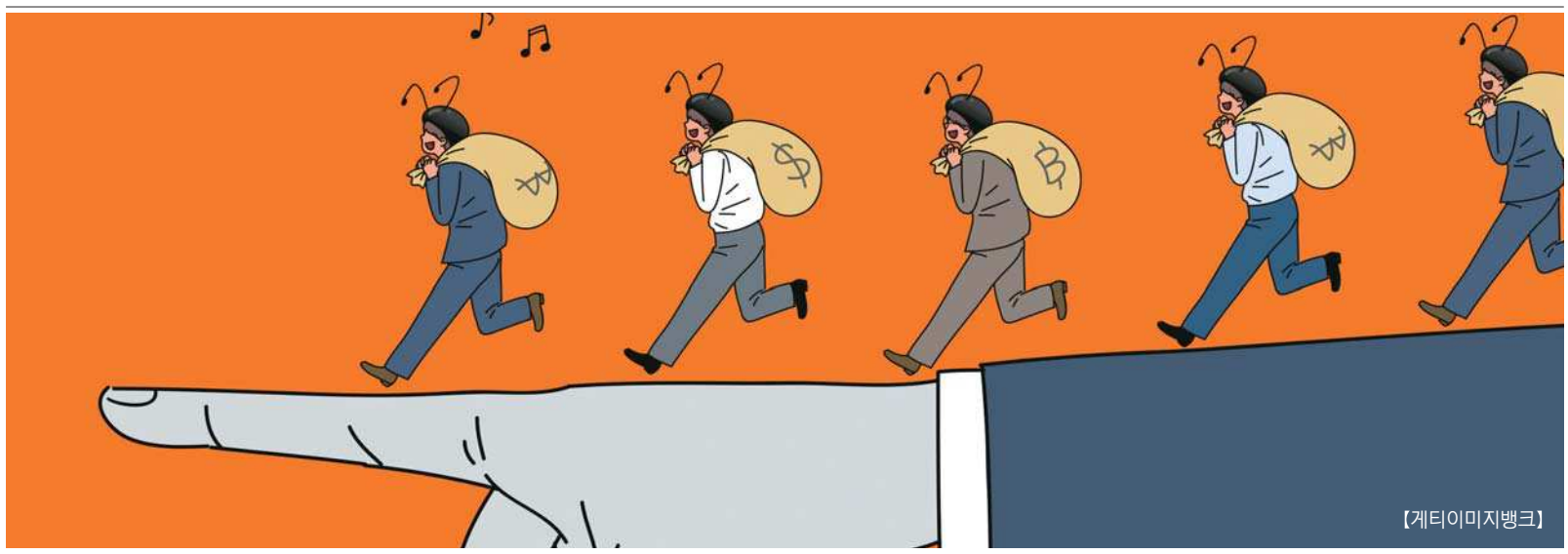


1. 회사 내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
2. 이사는 주주총회나 내부 임원이 선임할 수 있다. ( )
3. 사외이사는 회사 외부의 인력으로 선임한다. ( )

▶ 정답 = 1. X 2. X 3. ○

동학개미 몰려가는 그곳, 어디일까요?

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1) 아래 기사의 빈칸 (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개인·외국인 동반 순매수에 3100 돌파

(가)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 기준 (가)는 전날보다 74.97포인트(2.47%) 오른 3106.65를 기록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76억원, 3653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이 홀로 507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① 다우 지수 ② 나스닥 지수 ③ 코넥스 지수
④ 코스닥 지수 ⑤ 코스피 지수

(해설) 기사의 빈칸 (가)에 들어갈 용어는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총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가중평균하여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 지수다.

다우 지수는 미국 다우존스사가 가장 신용도가 높고 안정된 주식 30개를 표본으로 시장 가격을 평균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다. 나스닥 지수는 전자식으로 증권 시세를 보도하는 나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정답은 ⑤

(2) 아래 기사를 읽고 밑줄 ㉠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올바르게 추론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 요구불예금이 30조원가량 늘어났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데다 ㉠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일자 이 돈이 다시 시중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로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1%대에 그쳤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연일 상승장을 기록하며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만연했다. (후략)

①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②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③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④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해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자산시장에 몰렸던 돈이 은행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공산이 크다. 한편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하게 돼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 속도를 조절해 물가상승세를 억제할 것이다. 정답은 ④

최병일·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지붕이의 용어사전

앰부시·페이턴트 트롤·페이고 원칙

▶앰부시(Ambush)

'매복'을 뜻하는 용어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을 일컫는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규제를 피해 광고하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유명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등록된 공식 후원 기업이 아니면 올림픽 기간에 오륜기와 로고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단어와 어휘조차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는 '스포츠 축제'와 같이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마케팅을 구사한다.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

특허 괴물이라는 의미로, 기술 생산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소 등에서 기술을 헐값에 사들여 시장에서 비슷한 기술이 나타나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 전문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페이고 원칙

'pay as you go'란 문장은 '현금으로 지불하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의 목표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을 의미한다. 페이고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부문은 과감하게 삭감(pay)하는 대신 큰 쪽으로 몰아준다(go)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다. 구미 선진국에서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톱니효과(Ratchet effect)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즉시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시가총액 3위 등극 카카오…'액면분할' 효과 컸다는데

난해한 경제 이슈를 해시태그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간 화제가 됐던 사건 3개를 골라 그 사건을 둘러싼 경제 개념, 전후 맥락을 짚어 학생들의 시선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풀어냈습니다. 기사를 읽은 뒤 하단에 제시된 뉴스 읽기도 생각해 본다면 머리에 쏙쏙 남겠죠.



지난해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의 모바일 게임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 '국민株'된 카카오…주가 상승 이유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기업 #액면분할

카카오가 코스피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은 상장된 주식의 총합으로, 기업의 크기 혹은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카카오는 설립 후 11년 만에 시가총액 70조원(6월 22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며 종전 3위였던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은 지난 4월 액면분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액면분할이란 말 그대로 주식 가격을 쪼개는 것으로, 액면 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5만8000원짜리 1주를 11만1600원짜리 5주로 분할하는 겁니다. 보통 기업의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유동성(사고파는 거래)이 낮아질 경우 실시합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식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는 경영권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네이버 등 기업이 액면분할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과 내년 이후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플랫폼의 잠재력을 따지면 카카오의 기업가치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최근 커머스와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플랫폼 파워를 기반으로 자회사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당분간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치열한 몸값 경쟁이 예상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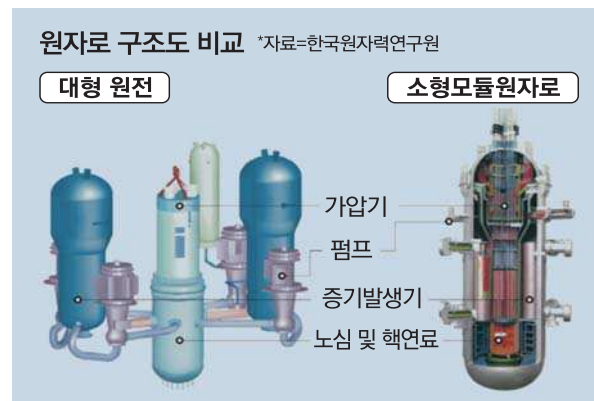
1위 삼성전자	477.58조원
2위 SK하이닉스	88.82조원
3위 카카오	70.58조원
4위 네이버	64.23조원
5위 LG화학	59.44조원

*2021년 6월 22일 종가 기준

【뉴스 읽기】 기업의 주식 가격을 단순히 '싸다' 혹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탈원전 해법 '소형원전'이 뭐길래

#원자력발전 #탈원전 #소형원전 #탄소중립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을 살릴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소형모듈 원전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소듐(액화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형모듈 원전(SMR)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며 차세대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전은 커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전 설계가 어렵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SMR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란 공동 목표가 생기며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전은 10여 년 전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SDA)를 받은 소형 원전입니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우왕좌왕 하는 사이 우리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미국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벌써 SMR 12기에 대한 국내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 읽기】 석탄화력발전·원자력발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른 청정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 국민 68% "86세대 물러나야"

#30대당대표 #MZ세대 #세대교체 #86세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경험이 없는 0선·30대 정당 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정치권 세대교체를 위해 '86세대'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8.3%가 동의했습니다. 정치 혁신과 세대교체를 향한 열망이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86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한 세대를 지칭합니다. 이들이 30대였던 1990년대에는 386세대라고 불렸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486, 586세대라고 불립니다. 민주화운동을 겪고 누구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86세대가 기득권층이 되며, 이들을 향한 불신과 반감은 세대교체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고위원 선출도 파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만 36세인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데 이어 최고위원들 역시 30·40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날 선출된 6명의 지도부 평균 나이는 43.7세였습니다. 여풍(女風)도 거셌습니다.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었고, 1~2위는 모두 3040 여성, 그것도 초선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중년·남성 중심의 정치에 염증을 느낀 여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수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매경DB】

【뉴스 읽기】 세대교체 목소리가 커지며 40세인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령 기준은 어떤지, 제한 폐지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아시아 원톱’ 걸그룹 트와이스…이젠 글로벌



미니 10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
미국 ‘빌보드 200’ 6위로 진입
역대 K팝 걸그룹 사상최고 성적
월드앨범 차트서는 1위 올라

나연·사나·지효 등 작사 참여
청량함과 낭만적 분위기 더해
유튜브 ‘15연속 1억뷰’ 진기록

‘아시아 원톱’ 걸그룹 트와이스가 데뷔 7년차를 맞아 글로벌 팝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한다.

트와이스는 6월 11일 미니 10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를 발표했다. 타이틀 곡 ‘알코올-프리(Alcohol-Free)’는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곡, 편곡하고 작곡가 이해솔이 편곡에 참여한 새로운 감각의 ‘트와이스표 뉴 서머송’이다. 트와이스 특유의 청량한 콘셉트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 마치 여름 해변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퍼스트 타임(First Time)’ ‘스캔들(Scandal)’ ‘컨버세이션(Conversation)’ ‘베이비 블루 러브(Baby Blue Love)’ ‘에스오에스(SOS)’와 2020년 12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크라이 포 미(CRY FOR ME)’ 영어 버전까지 총 7곡이 수록됐다.

이 중 나연은 ‘베이비 블루 러브’, 사나는 ‘컨버세이션’, 지효는 ‘퍼스트 타임’ 단독 작사에 나섰고, 다현은 ‘스캔들’과 ‘에스오에스’ 작사 크레이트에 이름을 올리며 멤버들의 곡 참여도가 극대화되는 등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 한층 더 ‘트와이스표’로 돌아와 또 통했다

새 앨범은 트와이스가 쉼 없이 꾸준한 음악 행보를 보여주는 기특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미국 빌보드를 비롯해 각종 해외 차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앨범이다.

이들은 이번 앨범으로 6월 26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6위에 진입해 역대 K팝 걸그룹이 발매한 미니 앨범 사상 최고 성적을 수립했다.

트와이스는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로 지난해 6월 ‘빌보드 200’에 200위로 처음 진입한 뒤 12월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으로 7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세 번째 만에 ‘빌보드 200’ 톱10 안에 오르는 비약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앨범 성적이 보여주는 매서운 성장세는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또 다른 빌보드 메인 차트인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도 입증됐다. 해당 차트 9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 이는 지난해 12월 해당 차트에서 기록한 73위보다 64계단 상승한 자체 최고 순위로, 트와이스의 가파른 글로벌 성장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트와이스는 새 앨범과 타이틀 곡으로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거머쥐고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3위 등을 비롯해 빌보드 차트 총 11개 부문에 랭크됐다. 또 미국 롤링스톤 앨범 차트에서는 6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해외 차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 전문 웹진 피치포크는 최근 트와이스의 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에 K팝 그룹 기준 최고 평점인 7.3점을 부여하고 호평하기도 했다. 피치포크는 “트와이스는 앨범마다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번 앨범은 K팝 최고의 여름 앨범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또 트와이스는 앨범 발매와 함께 31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 차트 정상, 타이틀 곡은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200 차트에서 65위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음악과 비주얼의 조화, 美 TV 시청자도 홀렸다

트와이스는 새 앨범 발매에 앞서 미국 NBC 인기 토크쇼 ‘엘런 디제너러스쇼’에 출연해 타이틀곡 ‘알코올-프리’ 퍼포먼스를 최초로 선보이는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팬들의 높은 관심도만큼이나 뮤직비디오도 폭발적 기세로 상승 중이다. ‘알코올-프리’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11일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빠른 속도로 돌파했다. 전작 ‘아이 캔트 스톱 미’ 기록을 10시간 단축한 자체 최단 기록으로 ‘15연속 1억뷰’라는 진기록을 썼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 ‘OOH-AHH하게’(우아하게)부터 ‘알코올-프리’까지 모든 활동곡을 억대 조회수 반열에 올려 굳건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5월 15일에는 일본 싱글 5집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뮤비가 조회수 1억건을 넘어서며 일본 발표곡 ‘캔디 팝(Candy Pop)’ ‘TT 일본어 버전’을 포함해 통산 17편의 1억뷰 기록을 쌓아올렸다.

이 기록으로 전 세계 걸그룹 중 1억뷰 이상 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이 된 트와이스는 ‘알코올-프리’까지 추가해 한 달 만에 신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아하, 과학

기원전 3천년부터 시작된 '진통제의 역사'



원은지 박사의 생명과 과학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시작된 이후 타이레놀 판매가 급증하다 못해 품귀대란까지 일어났다. 일부 약국들은 타이레놀 품절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기도 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가 권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통제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낸 적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약에는 대개 소염진통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염작용 성분이 없는 타이레놀 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로 진통·해열 작용과 함께 소염 작용이 뛰어나 관절염이나 치통 같은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흔히 사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타이레놀' 등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서울의 한 약국 입구에 타이레놀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Q. 통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는 뜨거운 냄비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닿았을 때 통증을 느끼며 금세 손을 뗀다. 통증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기경보지표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위험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는 신호인 것이다. 통증은 두뇌 작용에 의한 것인데 피부나 근육 등 말초신경에 자극이 전해지면 감각신경 말단이 전기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이 신경 신호가 척수를 통해 대뇌의 시상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시상으로 전달된 신경 신호가 대뇌피질에 전달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무통성무한증(통각상실증·CIPA·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으로 불리는 이 병은 유전성 질환의 하나로 통점, 냉점, 온점 등 감각(압력은 제외)을 뇌에서 인지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 드라마에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통증의학과 의사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는 뜨거운 것에 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노출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Q. 진통제는 언제부터 사용됐나요?

A: 파피루스에는 기원전 3000년께 이집트인들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버드나무를 이용해 치료했다고 기록돼 있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서도 버드나무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용식물로 기록돼 있는데 그 예로 버드나무 가지를 달인 물로 양치를 하면 치통이 멎는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일화는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에 응시했을 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버드나무 가지를 다리에 동여매고 시험을 마쳤다고도 한다.

그렇게 버드나무 껍질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효능이 관찰되고 연구됐는데 1829년 프랑스 화학자 앙리 르루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이라는 결정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이후 1838년 이탈리아 화학자 라파엘레 피리아에 의해 효능이 더 강한 살리실산이 추출된다. 1897년 독일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은 살리실산의 히드록시기를 아세틸기와 에스테르화 반응을 시켜 아스피린을 만들어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였다. 이렇게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스피린이 개발됐다.

Q. 진통제의 종류는?

A: 진통제는 포함하고 있는 약물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순수하게 진통 효과만 가지고 있고 소염 효과는 거의 없는 일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등), 염증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NSAIDs·브루펜 등), 마약성 진통제(모르핀·데메롤) 등이 있다.

각 종류에도 성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른데 해열이 목적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염증 증상이 있다면 NSAIDs를 복용하게 된다. 강력한 염증 치료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쓰인다.

약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성분은 종합 감기약 등에도 포함된 경우가 있어 하루 복용량을 고려해 복용해야 한다.

Q. 진통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A: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떠한 효소 또는 수용체와 결합해 어떠한 생화학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생리활성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약리기전이라 한다. 고통을 감지하는 데에는 우리 몸에는 통각수용기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이는 외상을 입을 때만 작용한다. 그리고 그 외상은 통증문턱(pain threshold)이라는 특정 값 이상이 될 때 느끼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이 그 문턱 값을 낮출 수 있다. 세포가 손상되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COX1, COX2'와 반응해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글란딘H2'로 바꾸게 되는데 이 물질이 체온을 올리거나 염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느끼는 문턱값을 낮춰 통증을 느끼게 한다.

진통제는 이 과정에 작용하게 되는데 진통제의 성분은 아라키돈산과 COX1, COX2의 결합을 방해한다. 아스피린은 활성 부위에 들어가 그곳에 흔적을 남겨 통로를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영원히 효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며, 이부프로펜은 두 효소의 활성 부위를 변형시키지 않고 결합해 있는 동안 아라키돈산의 결합을 저해한다.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문턱값을 낮추는 프로스타글란딘H2를 억제함으로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한다.

진통을 없애기 위한 진통제 복용은 늘 주의해야 한다. 복용자 나이와 체중을 고려한 용량, 진통의 원인을 고려한 성분을 따져야 한다. 특히 영국 의학저널 랜싯은 진통제의 약리학적 효과(염증, 발열 감소)에 의해 질병에 의한 감염과 질병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든 약은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복용이 통증의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몸에 대해 안전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분당 33억원…'억' 소리 나는 우주여행

세계 1위 부자라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는 오는 7월 20일 자신과 함께 우주여행을 할 동승자 1인을 모집했는데 480만달러(약 54억원)에서 시작한 사전 경매 가격이 7분 만에 2800만달러(약 317억원)까지 치솟아 낙찰됐다. 수수료 6%를 추가해 최종 가격은 336억원이 넘는다. 지구 상공 100㎞ 너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 분당 33억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시험 발사되는 뉴 셰퍼드. 【사진 제공=블루 오리진 홈페이지】

Q. 왜 하필 목표 고도를 100㎞ 너머로 설정한 것일까?

A. 일반적으로 고도 100㎞를 넘어서야 우주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카르만 라인, 카르만 경계라고 한다. 시어도어 폰 카르만이란 과학자가 제안한 것으로, 그가 지구와 우주를 나눈 기준은 '양력'이었다. 양력은 지구의 대기를 필요로 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므로 이에 따라 양력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높이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카르만의 생각이었고, 그 경계를 고도 100㎞로 제안한 것이다(연구 결과는 83㎞ 정도였지만 편의성 등을 고려해 100㎞를 제시했다고 한다).

우주의 경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 세계는 그의 견해를 국제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이 고도를 80㎞로 낮추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미 공군에서는 80㎞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구와 우주의 경계 기준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국제항공연맹(FAI)의 재정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도 100㎞ 너머의 공간에 다다라야 '이견' 없이 우주에 다녀온 것으로 여겨진다. 제프 베이조스의 상품 기획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여행 계획표상 베이조스의 우주선은 발사 후 3분30여 초 만에 카르만 라인을 돌파하고 이후 105㎞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고도 100㎞ 이상 높이에 머무르는 총 시간은 약 1분. 결국 엄밀한 의미의 '우주'여행은 '1분' 정도에 불과해 분당 단가는 336억원이 된다. 그나마 온몸이 두둥실 떠오르는 무중력 상태의 지속 시간은 이보다 조금 더 긴 약 3분으로 이렇게 따지면 분당 가격은 100억원 정도다. 말 그대로 '억소리'가 몇 곱절로 나는 여행 상품인 것이다.

Q. 우주여행 티켓값, 과거에는 어땠나?

A. 우주여행 상품은 시작부터 '억소리'가 났다. 2001년, 최초의 우주관광객 데니스 티토가 약 일주일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다녀오는 데 지불된 비용은 당시 금액으로 2000만달러(약 200억원)였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우주 체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당 단가는 200만원 정도다. 티토 이후에도 억소리 나는 우주여행은 몇 차례 계속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었던 찰스 시모니는 두 번이나 이 우주여행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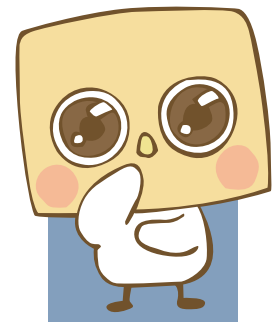
티토에 비해 베이조스의 여행 상품은 지속 시간이 훨씬 짧아 바가지(?)를 쓰는 느낌도 없지 않다. 세계 6위 부자, 투자의 신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 경매가가 5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번 고객은 세계 1위 갑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덤으로 무중력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덤으로 얻어지는 전 세계적 유명세까지 고려했을 수도 있겠다.

Q. 다른 방식의 우주여행에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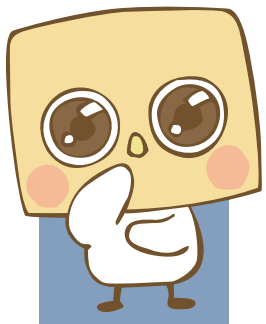
A. 제프 베이조스 외에도 우주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부자들이 있다. 세계 2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달이나 화성에 가는 여행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일본의 괴짜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에게 2023년 달에 가는 우주여행 티켓을 팔았다. 화성 이주를 추진하기 위해 스타십(Starship)도 개발 중이다. 엑시옴 스페이스사가 내년 1월로 계획 중인 600억원짜리 우주여행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가 개발한 우주선을 사용한다.

한때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했던 리처드 브랜슨도 우주여행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주선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장착한 후 최대한 높은 고도에 올라간 뒤 발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티켓 비용은 수억 원으로 예상된다.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폴 앨런 역시 브랜슨과 유사한 방식의 '스트래토론치 시스템'을 구상했지만 그가 2018년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로선 사업 자체의 동력은 꽤나 떨어진 모습이다.

살펴본 대로 현재 추진 중인 우주여행 상품들은 부자들이 기획하고 부자들이 고객이 되는 모습이라 그들만의 이야기, 부자들의 취미생활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초기 개발비용이 회수하는 단계를 지나면 아무래도 비용은 꽤나 낮아질 것이다. 현재 일반 항공권 정도 가격에 누구든 우주여행을 즐기는 시대가 곧 찾아오길 바라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교육파트〉



아하, 과학



아하, 과학

가상공간서 회의·여행…메타버스선 다 되네



정길호 박사의 재미있는 ICT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가 급부상 하고 있다.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혼합현실(MR)이 현실 속에 비춰진 모습을 보여줘 전 세계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제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수준을 넘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4일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과 데스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 버추얼 밋업'의 가상공간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경DB】



Q.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디지털 콘텐츠의 탄생은.

A: VR·AR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탄생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아버지로 불리며 스케치패드와 컴퓨터 그래픽스를 개발한 아이번 서덜랜드(Ivan Edward Sutherland) 덕분이다. 그는 하버드대 전기공학과 교수 재직시절 VR·AR 전용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HMD)를 개발했다. VR·AR는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적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는 사람들을 보다 실감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유입시켰다.

그동안 이러한 기술들은 전시회나 테마파크 한복판에 체험 공간을 운영해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오늘날 콘텐츠 기술은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실감나게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 중이다.

Q. 디지털콘텐츠의 역사는.

A: 과거 20년 전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핵심은 주로 '게임'이었다. 게임 분야처럼 콘텐츠 기술은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후 컴퓨터그래픽(CG) 기술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왔다. 연구원들은 크리처(Creature·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생명체를 실제처럼 구현한 3D 캐릭터) 기술을 통해 사물에 적용했고, 실제 배우 같은 가짜 배우도 만들었다. 바로 '디지털 액터' 기술이다. 2013년부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혼합현실(Mixed Reality·MR)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구글 글라스 이후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도 저가형 VR 헤드셋 '오큘러스 고'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증강현실의 경우 교육이나 훈련 등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시장 확대가 쉬워지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AR·VR·MR를 뒤이을 홀로그램이란.

A: 코로나19가 디지털콘텐츠기술의 확산을 빠르게 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앞장서 VR·AR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여행업체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미리 가보는 여행지를 VR·AR로 제작해 여행 잠재적 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혼합현실 또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혼합현실은 가상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감 나는 느낌을 들게 하며, 스마트 안경 밖의 상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해결할 과제도 있다.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가 쓰고 벗는 데, 그리고 사용하는 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지워지고, 멀미 증상 등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올 또 다른 현실은 무엇일까? 여러 기술을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홀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홀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옆에 떠 있는 AI 개인비서 홀로그램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말이다.

Q. 콘텐츠 기술은 사람의 오감을 만족하도록 진화?

A: ETRI 연구진은 그동안 초다시점(super multi-view)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홀로그램에 주목해왔다. 향후 홀로그램의 연구는 소재·부품 기술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콘텐츠,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완벽한 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개인비서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모니터 앞에 영상으로 띄워진다면 더욱 실감 나고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콘텐츠 기술의 진화는 사람이 느끼는 오감을 만족하는 기술로 정의되곤 한다. 기존 연구가 약간의 촉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후각에 관한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HMD를 쓰고 바닷가 소나무밭을 걷는다면, 바람이 살살 불고 바닷가 갯벌의 향과 소나무 향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외 연구진은 이미 미각 연구를 수행 중이다.

Q. 메타버스의 앞날은.

A: 이 기술의 개념이 나온 지는 20여 년이 되었다. 가상과 초월(Meta)의 의미와 우주(Universe)를 뜻하는 합성어이다. 3차원 가상세계나 증강세계를 뜻한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는 메타버스를 "지각되는 가상의 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가상의 화폐로 아바타를 통해 물건을 사고 가상의 사무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도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능하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네이버 자회사 '제페토'에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들이 입점하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ETRI 연구진도 디자인한 옷을 가상에서 바로 착용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AI가 제작한 의상을 아바타에 입혀 보기도 했다. 〈ETRI 홍보실장〉

대문호가 쓴 '고양이 이야기'… 세계적 뮤지컬로 탄생

T S 엘리엇(1888~1965)

뮤지컬 '캣츠' 원작을 집필
작품 속 등장하는 고양이
새로운 생명력 불어넣어

1948년 노벨 문학상 받은
현대 영미문학 대표 작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에는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캣츠〉가 있다. 이들 중 〈캣츠〉의 주인공만이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길 고양이가 개성 가득한 이름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 고양이 중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과거를 뒤로한 채 무리로부터 소외된 늙고 초라한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의 선율은 특히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캣츠〉는 T S 엘리엇이 어린이들을 위해 쓴 시집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1972년 영국 뮤지컬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 연출가 트레버 넌과 함께 이 작품을 각색해 1981년 런던에서 초연을 올렸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시 15편 속에 등장하는 럼 텀 터거, 올드 듀터러노미, 미스토펠리스, 맥캐버티, 스킴블샹스 같은 특별한 이름을 지닌 고양이들은 여전히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그 꼬리를 한껏 세우고 우리 곁을 사뿐히 맴돌고 있다.

시인이자 극작가, 문학평론가였던 엘리엇은 1888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철학과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 유럽으로 건너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문학에 대한 연구와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며 잠시 은행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영국으로 귀화한 후 영구 정착한다.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황무지』『네 개의 사중주』와 같은 작품을 통해 현대 영미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엇은 1965년 사망한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지닌 고양이들에 관한 그의 시 두 편을 살펴보려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시집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 속 시 15편은 유난히 '이름'들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특별히 첫 번째 시와 열네 번째 등장하는 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고양이 이름 붙이기는 어려운 일,
심심풀이로 할 일이 아니지.
언뜻 듣기엔 헛소리 같겠지만,
고양이는 이름이 세 개는 있어야 해.
먼저 평소에 부를 이름이 있어야지.
피터, 오거스터스, 알론조, 제임스,
빅터나 조너선, 조지나 빌 베일리,
모두 다 평소 부르기 좋은 이름들.
원한다면 더 화려한 이름도 있어.
신사 이름도, 숙녀 이름도 있지.
플라톤, 아드메토스, 엘렉트라, 데메테르,
화려해도 평소 부르기 좋은 이름들.
하지만 고양이는 특별한 이름도 필요해.
말하자면 독특하고 품위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이 없다면 꼬리를 쳐들거나
콧수염을 뻗거나 자부심을 품지 못해.
이 특별한 이름도 몇 개만 꼽아 보면,
문커스트랩, 쿠악소, 코리코팻,
봄발루리나, 아니면 젤리로럼,
오직 한 고양이만 가질 수 있는 이름.
그러고도 이름이 또 하나 있지.
그것은 네가 상상도 못 할 이름,
사람은 아무리 궁리해도 알 수 없어.
고양이 혼자만 알고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양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면,
그 이유는 정말이지 늘 똑같아.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심오하고 유일한 그 이름. 「고양이 이름 붙이기」

길 위의 자유로운 방랑자, 고양이에게 '이름'이, 그것도 세 개나 있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부르기 좋은 이름을 넘어서, 독특하고 품위 있는 이름, 게다가 고양이 혼자만 알고 있을 법한, 한 마리 고양이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왜 필요하다는 것일까. 이 질문을 뒤로하고 시집 속 열네 번째 순서로 등장하는 다음 시를 만나보자.

여러 가지 고양이 이야기를 읽었으니,
내 생각에는 너도 이제 고양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통역이 필요 없을 거야.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고양이가 나나 너와 닮았음을,
여러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과
많이 닮았음을 알겠지.
누구는 제정신이고 누구는 미쳤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못됐고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캣츠'. 【매경DB】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좀 못하고,
하지만 모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어.
너는 고양이들이 일하거나 노는 것을 보았고,
고양이의 진짜 이름과
고양이의 버릇이며 사는 곳을 알았어.
그런데
고양이한테는 어떻게 말을 걸지?

그러니까 먼저 기억을 되살려 줄게.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

그렇게 하면 너도 곧 목표를 이루어
마침내 고양이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야. 「고양이에게 말 걸기」

시집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위 시를 읽어보니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어쩌면 고양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양이들이 나나 너와 닮았다면, 이 시는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에게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에게 다가가 어떻게 말을 걸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 그리고 관계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함께 고민해보자. 당신 고양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윤현정 대일외고 교사

채식하고, 종이 줄이고… 지구 살리는 '생태교육'



조성백 장학사의
교육현장 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환경위기시계 '위험' 가리켜
153개국 1만명 과학자 비상 선언

기후변화 위기, 학교도 고민해야
인간과 자연 공존을 위한 첫걸음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환경위기시계가 있다. 0~3시까지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을 나타낸다. 2020년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47분, 한국 환경위기시각은 9시 56분으로 발표됐다.

환경 파괴로 전 지구에서는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매년 여름 역대 최고 폭염 기록을 넘어섰다는 뉴스와 초대형 산불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곧 닥쳐올 장마도 매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진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 153개국 과학자 1만1258명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지구가 기후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구 보존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비상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시스템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지구를 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기후변화의 결과와 환경문제의 원인 등을 수업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지구를 위한 생태행동 실천을 통해 친환경적인 습관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한 달에 한 번 채식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 것부터 간단한 기후행동을 실천해보자. 나 하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미래의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 지금의 작은 움직임들로 당장 큰 성과가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때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 꿈도 없다



김재우 원장과
함께 하는 아이로드

풍요로운 환경서 큰 청소년들
진로에 대한 고민에 소홀해져

자식위한 마음 모르지 않지만
적절한 결핍 상황 만들어줘야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두는 시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아니라 가족을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인지하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길어질 때, 진로의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삶의 수준과 평균소득이 높아지면서 부족함 없는 생활에 안주하게 되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독립적인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진로나 직업교육이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 삶의 전반적인 질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방해가 된다 하니 어른들은 오히려 이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삶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 고민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적성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업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대가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윤택함이 진로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슬로 인간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자연스레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1~2단계 욕구가 대부분 충족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진출을 가열하게 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삶에 안주해 미래에 대한 꿈 없이 부모가 제공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삶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를 무결핍에 의한 욕구의 부재에서 찾으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욕구가 다른 욕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기가 생기고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너무나도 풍족한 환경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현대의 풍요로움이 동기 결핍으로 이어지고 꿈이 부재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현재의 부모들이 과거 자신의 부족했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부족함 없이 자녀를 키우고 싶은 가련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나,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대가가 청소년들을 꿈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욕구를 그냥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간단한 미션 수행이나 집안일 등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에게 대가가 지급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매하고 가질 수 있도록 동기 유발과 성취 욕구가 적절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핍이 있어야 욕구가 있고,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성취 만족을 느끼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주도성이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 미래에 대한 설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적절한 결핍의 상황을 만들어 생리적·안전적 욕구의 충족이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소서 문항·글자수 줄여…제출 않는 대학도 많아



이명우 수석 컨설턴트
행복한3월학원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주요 변경사항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 감소와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 수의 통합·축소입니다.

1.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의 감소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해 교육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모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및 대학 자율문항의 변화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올해 대입 자기소개서는 전반적인 문항과 글자 수가 통합·축소되면서 간소화됐습니다. 대입 자기소개서는 공통 문항과 자율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공통 문항이 기존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었고, 글자 수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의 1번 '재학 중 학습 경험'과 2번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이라는 두 문항이 1번 문항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1번 1000자, 2번 1500자였던 글자 수도 문항이 통합되면서 1500자로 줄었습니다. 기존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실천 사례'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주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글자 수는 1000자에서 800자로 줄었습니다. 대학별 자율 문항은 기존의 1000~1500자 분량에서 800자로 축소됐습니다. 서울대는 독서 2권, 기타 많은 대학은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기술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3.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양식 변화는 수험생에게 불안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잘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활동 동기 및 과정을 나타내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에 결과만 기록돼 있는 활동의 동기와 의미,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학생부에 좋은 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하며,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문항별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

서울·경인권	강남대, 경인교대, 고려대(서울), 단국대, 대진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숙명여대(면접형 제외), 성공회대, 신한대, 안양대, 을지대, 중부대(고양캠),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충청권	건국대(글로컬), 공주교대, 공주대, 나사렛대, 단국대(천안),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상명대(천안),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우송대, 청운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학생부종합Ⅰ), 한국교통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대, 한남대(지역인재), 한서대, 호서대
경상권	경북대(영농창업인재 제외),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고신대, 금오공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지역인재),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의예과 제외), 진주교대, 한국해양대(지역인재)
호남권	광주교대, 군산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순천대, 원광대(서류전형/지역인재), 원광대(서류면접형/의예/치의예/한의예 제외),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조선대, 중부대
강원·제주권	가톨릭관동대(의학/간호 제외),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제주대, 춘천교대, 한라대

자기소개서 양식 비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자율문항〉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3. 〈자율 문항〉 필요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 문항 1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주요 대학 3번 자율문항

대학	문항 / 분량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800자) - '선정 이유'는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이내로 작성 - '선정 이유'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
연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성균관대	성균관대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중앙대	미발표
경희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800자)
서울시립대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학부(과)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
동국대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800자) * 노력 과정은 과목 선택 등을 통한 학업 의지, 진로 준비 구체화 과정, 진로 고민의 흔적 등을 의미
홍익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국민대	전공 지원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 분야의 진로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800자)
숭실대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800자)
아주대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교 재학 중 도전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KAIST	1. KAIST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질문 (띄어쓰기 포함 150자 이내)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결 노력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2. 3번 : 대교협 공통문항 4. 본인의 꿈과 관련하여, KAIST에 진학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자율문항 없는 대학	이화여대 / 건국대(특성화고만 3번 있음) / 숙명여대 / 세종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 명지대/ 가천 일부 / 덕성여대 / 동덕여대 / 서울여대 가톨릭대 / 경기대 / 강남대/ 충북대 / 한림대 등

기업에 필요한 건 '윤리적 혁신'… ESG 적극 참여해야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 판단하던 전통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한 ESG 투자가 열풍이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물 부족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양극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갈구하는 큰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많은 기업이 앞다퉈 ESG경영에 뛰어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적책임(Social)·지배구조(Governmen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기업을 운영할 때 단순히 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SG 도입은 투자자들 시각도 바꿨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재무적인 성과에만 두었지만, ESG 도입 이후에는 기업가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반영해 평가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SG경영에 뛰어들게 된 것은 ESG가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되면서부터다. 2020년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발언이 ESG 투자의 신호탄이 됐고, 이후 많은 기업이 사회책임 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10년이나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배송 차량 1만대를 전기차로 바꾸고, 2030년까지는 총 10만대를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다양한 기업의 실천, 사회제도 등 마련으로 ESG는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 혁신이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와 경영 방향 등을 윤리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윤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우리는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며 함께해야 한다.



김효림 틴매경 학생기자(서울여상 3학년)

비트코인, 파티는 끝났다… 무작정 뛰어들면 큰돈 잃어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에 청소년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다. 지금 같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는 듣는 것에서 멈춰야 할 때다.

청소년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코인당 몇 천만 원씩 하는 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일까? 해답은 비트코인을 쪼개서 살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1코인 시세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싶은 돈이 40만원이라면 0.01코인만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투자 문제는 심각하다. 뉴스에서 나오는 말과 주위에 떠도는 잔지식은 아직 정확한 국제 정세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 번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언제 팔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시세 판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용어에 '애프터 샴페인 파티(After Champagne Party)'라는 말이 있다. 파티가 다 끝나고 들어온 사람을 일컫는 말로, 주가가 폭등해 뉴스나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최고가에 주식을 사들여 낭패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이미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을 때이므로 이 시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투자했다가 결국 그 거품이 꺼진 뒤 손해만 보게 되기 일쑤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무모한 주식 투자는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송민영 틴매경 학생기자(광남고 2학년)

가톨릭 신앙에 밑바탕, 다양한 信心 행사로 인성 길러

수원 효명고를 소개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학교법인 광암학원 산하 효명고등학교는 1953년 유수철 신부가 설립했다. 당시는 전쟁이 발발한 후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였다. 이에 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본받아 사회와 국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학교명을 '새벽을 밝히는 빛'을 의미하는 '효명(曉明)'이라고 지었다. 설립 초기 '효명고등공민학교'라는 교명은 2004년 변경돼 지금의 '효명고등학교'(교장 서상진 바오로 신부, 교감 박금수)가 됐다.

학교 특징 중 하나는 효명동산으로 불리는 자연 환경이다. 효명고등학교는 다양한 꽃나무와 관목으로 우거진 생태 환경이 여러 학교 건물동과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건물동을 분리한 구조를 지녔다. 학년별 건물 옆에는 여자 기숙사인 소피아관과 남자 기숙사인 돈보스코관이 있다.

68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효명고등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돼 즐길 수 있는 학교 행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연례 행사인 광암제를 비롯해 가톨릭 학생회, 과학 동아리, 교지편집부, 예비교사 동아리 페스탈로치 등 효명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자율동아리의 동아리 발표대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효명고등학교는 광암학원 산하 학교로서 가톨릭 교회 전례 주기에 맞춰 개강미사, 5월 성모의 밤 행사, 주보 성인의 날 등 신심(信心) 행사를 연다. 교정에도 성당이 있어 원하는 학생은 매일 미사 참례가 가능하다.

효명고등학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효명인을 육성한다'는 교육 목표로 커리큘럼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 진로 탐색을 돕는 두드림 프로그램, 창의 인재 육성부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학교는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한다.



이아령 틴매경 학생기자(효명고 1학년)

랜덤채팅은 성범죄 소굴…운명적 만남 기대 말아야

코로나19로 학업이 끝나고 밖이 아닌 집에서 지내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는 올해 1분기에만 3000억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4분기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가입자는 20.5%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를 찾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오메글로 낯선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기'와 '랜덤채팅 도전'이 대표적이다. 신선하면서도 유머러스해 영상 조회 수가 1000만회에 이르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영상이 많아지자 미국 웹사이트인 '오메글(Omegle)' 같은 낯선 사람과 영상통화하며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교류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영상통화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성범죄자가 피해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인 경우가 각각 93.4%, 92.5%로 나타났다.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 중 90.5%는 인터넷 채팅 또는 랜덤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숨기고 시청자에게 랜덤채팅의 재미있는 측면만 부각해 보여준다. 랜덤채팅과 영상통화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다.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웹툰, 소설, 만화, 영화, 웹드라마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많다. 네이버 웹툰 '랜덤채팅의 그녀', 웹드라마 '그래, 그래'는 랜덤채팅으로 사랑을 찾는 것을 소재로 한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에게 위협적인 랜덤채팅·영상통화가 '언젠가 체험하고 싶은 로망'이 돼버렸다.

온라인 소통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전한다. 랜덤채팅·영상통화는 되도록 피하도록 하자. 만약 낯선 사람이 개인적인 정보 또는 무례한 것을 요구한다면 즉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리거나 '112'에 신고해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영상통화의 현실에 눈을 뜨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선민 틴매경 학생기자(청심국제중 3학년)

직장인의 기본 회계 배워, 실전투입도 문제없죠

특성화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공부만이 살길이라 생각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대학에 입학하는 전형적인 루트를 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성 중심 사회가 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정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하고 그중 우수한 인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크게 공업, 상업, 농업, 수산, 가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재학 중인 특성화고등학교는 상업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경영, 금융, 회계, 무역, 유통, 전자상거래, 정보처리 등이 상업 계열 전공에 속합니다. 경영과 회계는 모든 회사의 기본이 되므로 취업 후 곧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자격증 수업을 진행하고, 교내 모의면접대회와 꿈 발표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맞춰 나아갈 수 있으며, 동아리 내 선후배 간 멘토·멘티 활동을 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경진대회와 창업대회 등 각종 대외활동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 창의력과 자립심까지 기를 수 있으며, 열심히 활동해 수상하게 된다면 그 역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상경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후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고2가 된 지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만이 정답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른 후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것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적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해보세요.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재희 틴매경 학생기자(경민비즈니스고 2학년)

청소년 눈높이로 SNS 모니터링…기관장에 정책 제안

청소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청소년기에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사업으로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청소년(9~24세)이 직접 의견 제시와 자문, 평가 등을 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저 막막하고 어려운 것, 똑똑하고 친화력 있는 친구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매월 안건을 정해 청소년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시설·프로그램·홈페이지·SNS 등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지 청소년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며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캠페인과 교류활동, 이벤트, 청소년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적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다면 학교·학원 외에 여러 친구를 사귀고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며 친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회의를 진행하면서 리더십과 발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성 사회'인 요즘, 공부만 하지 말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다니는 학교가 있는 지역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유빈 틴매경 학생기자(경민비즈니스고 2학년)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8-178호
등록번호 : 2009-0342호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제75회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 TEST



시험접수: 7월14일 (수) 까지 mktest.org

시험일 : 2021년 7월 24일 (토)

· 자격명: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민간자격(최우수, 우수) / 등록민간자격(보통, 미흡)
· 응시료: 3만원(응시료 외 자격취득 추가비용 없음) · 환불규정: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 출제과목: 경제, 경영 각 40문항(총 80문항, 90분)
· 자격유효기간: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 발급기관: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장대환 · 연락처: 02-2000-2469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 이메일: mktest@mk.co.kr · 홈페이지: http://mktest.org